

#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통해서 본 한국전통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독락당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Space through Merleau-Ponty's Phenomenology

- Focusing on Dok Rak Dang -

이 찬\* / Lee, Chan

김태우\*\* / Kim, Tae-Woo

### Abstract

Ceaseless studies and efforts to verify today's Korean nature that has advanced into digital era of 21C are continued. At this point of time, it is required to look back our heritage in diverse points of view free from theoretical and formal studies on our traditional spaces. Phenomenology, which is rising as the important theme in recent modern Western philosophy, suggests interesting analyses from this standpoint.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Korea's traditional residents 'Dok Rak Dang' based on Marleau-Ponty's phenomenology, and explore phenomenological spatial principle and new point of view implied in it. Particularly, Marleau-Ponty's phenomenology is the philosophy that shows intersubjective and involved relations between space and human, and intended to accept coincidental incidents occurred by human's action truthfully as they are. With three spatial concepts of direction, depth, and movement in Ponty's phenomenology, and placement nature of the earth that intercombine with human's body who is subject of these three concepts as analyze tool, Korea's traditional residents, 'Dok Rak Dang' has been analyzed. More segmentalized analyses have been deduced, and principle of phenomenology, that perceptions such as direction, depth, movement, etc are working synthetically to be accepted as essence of experiences could also be found in Dok Rak Dang.

키워드 : 메를로-퐁티, 현상학, 신체, 체험, 공간지각, 전통공간, 독락당

Keywords : Merleau-Ponty, Phenomenology, Body, Experience, Spatial awareness, Traditional space, Dok Rak Dang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디지털혁신의 시대에 진입한 오늘날의 문화 환경은 사회·경제·기술·환경적 관심과 더불어 지역적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개별성에 따른 가치인식을 요구 하고 있다. 이에 지역마다의 민족적 고유성과, 특수성을 추구하려는 공간디자인 환경은 갈수록 그 폭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변환기에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양식, 새로운 형태에 대한 발상의 나열 뿐 만이 아닌 우리의 것을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 재검증 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미처 발견치 못한 새로운 내용과 분석적 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며 좀 더 나아가 전통개념에 대한 현대적 수용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동안의 한국 전통건축

에 대한 연구는 수많은 논문이 증명하듯 광범위 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주류가 사적 변천에 근거한 양식론적 연구 또는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건축 사상적 측면의 연구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현대건축 담론의 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신체 즉, 몸을 통한 현상학적 건축 공간 개념은 20세기 근대 건축에서 이성적, 합리적 공간개념을 중시함으로써 인간성의 부재라는 큰 모순을 일으켰던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 새로운 시대와 공간에 적합한 모델을 찾고자 하는 화두로서 흥미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현상학을 주창한 대표적 철학자 중에서 메를로-퐁티(Merleau-Ponty 1908~1961)<sup>1)</sup>는 인간의 신체와 지각 경험과의 관계를 탐구한 철학자로서 인간의 신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보아야 한다는 현상적 접근을 주장하였다. 퐁티는 건축에 있어서 창조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과의 중

\* 정희원,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

\*\* 정희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1) 메를로-퐁티: 프랑스 철학자, 인식대상이 항구 불변하는 객관적 세계보다 직관적 세계의 신경협성을 중시하는 현상학을 탐구

심을 인간의 신체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대건축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성적이고 물리적인 경향은 실제로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주체자로서의 인간의 체험을 무시한 이론적 해석이며, 사물과의 기계적 관계표현에만 관심을 둔 공간이라고 평하였다. 이러한 현대 서구철학의 개념인 현상학을 이용하여 우리 전통 주거공간인 '독락당'을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 전통공간에 내포되어 있는 현상학적인 공간특성과 전통건축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상학적 논의들 가운데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이론, 그 중에서도 그의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고, 대상으로는 한국전통공간 중 독창적인 공간 활용과 주거형태가 남아있는 독락당으로 정하였다. 독락당은 회재 이언적이 유배시절에 홀로 지내며 생활하기 위해서 지은 일종의 별업으로서 그가 직, 간접적으로 건축 조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채와 채의 미로적 구성, 자연과의 합일, 담과 채에 의한 영역의 한정등 기존의 독락당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여 지는 공간특성이나 시지각적 특성들에서 현상학적 공간개념과 상통하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추측 하에 이번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2장에서는 현상학, 그중에서도 신체의 현상학을 강조했던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이론에 대해 고찰해 보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공간개념요소인 '상·하의 방향성', '깊이' 그리고 '운동성'이라는 요소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현상학적인 공간개념요소들이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실존케 해주는 '장소'의 개념을 정립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전통공간을 현상학적 공간요소로 분석을 하여 세부적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요소로서 분석틀을 추출하였으며, 4장에서는 이렇게 추출된 분석틀을 토대로 '독락당'의 여러 공간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건축공간인 독락당 안에서 보여 지는 현상학적인 공간 특성을 추출한다.

## 2.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고찰

### 2.1.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이론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공간과 인간과의 상호 주관적이고 얽혀있는 관계를 드러내고, 인간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우연적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철학이다.

메를로-퐁티는 기존의 이원론적 사고체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몸'에 대한 새로운 철학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서구 근대 지성사에 뿌리 깊게 내재해 있는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근거에 자리 잡고 있는 결과

였다. 특히 주체와 객체, 몸과 정신, 자아와 세계를 분리시킴으로서 세계와 인간을 객관화 시키는 데카르트적 코기토(Cogito)는 그 비판의 핵심에 놓인다.<sup>3)</sup> 이와 같이 메를로-퐁티는 이성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난, 세계와의 직접적이고도 기본적인 관계를 재성취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엄밀한 과학'으로서의 철학에 대한 추구이기도 했으며,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이기도 했다.<sup>4)</sup> 따라서 메를로-퐁티는 일관되게 그의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이성에 의해서 구성된 과학적 세계가 아닌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상그대로의 세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의 저서 '지각의 현상학'에서는 몸과 의식은 실존적인 것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며 몸의 행동은 항상 지각을 전제로 한다. 지각은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배경이며, 모든 행위와 지식은 지각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각의 진정한 주체를 '신체(body)'로 인식했다. 모든 지각의 출발점은 '체험되고 체험하는' 고유한 신체로 메를로-퐁티는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지각은 세계라는 지평 속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세계와 지각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몸은 애매한 두께를 형성하며, 애매한 상태로 교통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 얽히는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공간적으로 존재한다. 세계는 '체험적인(lived)' 몸을 의미의 중심으로 해서 실존적 차원을 이루고 있다.<sup>5)</sup> 이렇듯 몸의 공간성은 현상적 몸의 실존적 '장소'를 규정하며 자체의 고유운동성으로 말미암아 공간을 창출한다. 다시 말해 현상학적 측면에서 몸이 세계와 통일되어가는 관계를 구조화 시켰으며 이러한 현상학적 몸을 시공간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공간개념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 2.2.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나타난 공간개념

메를로-퐁티는 고전주의 시대 이후 서구의 주요 공간개념인 동질의 연속된 공간 대신에,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위상 기하학적 공간을 내세운다. 즉, 공간에서 방향, 위치, 그리고 거리 개념은 근원적으로 몸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몸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사물들은 낮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 지각되고, 몸이 앞으로 걸어가거나 뛰어가면 상대적으로 사물들은 뒤로 지나가는 것으로 지각된다. 이처럼 공간의 지각은 몸과 공간간의 상호 이중적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다.<sup>6)</sup> 공간이란 몸이 그 속에서 거주하

2)Cogito : 라틴어 1인칭 형태로 '나는생각한다'라는 뜻

3)정변천, 현대 미니멀 건축의 작품경향에 관한연구, 부산대 석론, 2004. 2, pp.37-38

4)신일순, 메를로-퐁티의 몸의 현상학,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1, pp.6-7

5)오혜선, '몸'의 관점으로 본 현대 건축의 표현 양상 연구, 대한건축학회 발표논문집 23권 1호, 2003. 4, pp.200-201

6)김홍수, 다니엘리벤스킨트의 건축공간개념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1권 1호, 2002, p.34

고 살고 있는 곳이다. 몸이 공간속에 있다는 것은 몸이 그 공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몸과 공간의 이중적인 교차 또는 위임인 것이다. 즉 폰티의 현상학은 우리가 공간을 논할 때 인간을 제외하고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공간 안에 넣고 볼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폰티는 그의 저서 지각의 현상학에서 이러한 공간의 논리를 상, 하의 방향개념, 깊이개념, 운동의 개념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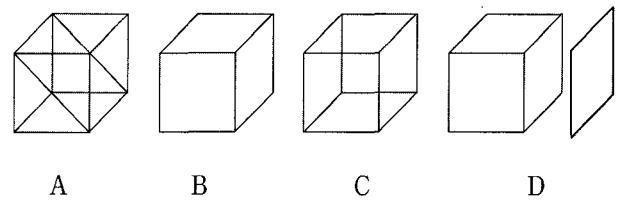
(1) 상, 하

메를로-폰티는 그의 저서<지각의 현상학>에서 방향으로서의 상, 하를 통한 정위의 개념과 공간과 정위 속에서의 신체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며 신체 현상학적 공간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스트래튼의 실험<sup>7)</sup>과 거울의 방 실험<sup>8)</sup> 등은 신체가 새로운 광경에 대응하는 운동적 검사를 통해, 우리가 읽어내는 위와 아래의 새로운 위치 설정은 무의미 하며, 결과적으로 이는 정위가 지각하는 주체의 전체적 행위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광경의 정위에 중요한 것은 객관적 공간 내의 사물과 같이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신체가 아니라, 가능한 행동의 체계로서의 신체, 즉 현상적 장소가 그 과제와 상황에 의해 규정되는 잠재적 신체라고 말한다. 즉, 신체의 소유는 이러한 상황을 변화 시키는 능력과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폰티의 설명은 주체의 신체성을 통한 공간을 이야기 하며 통일되고 종합적인 유기체적 신체와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이미 구성되어 있음이 본질인 공간을 너에서 인지하는 형식도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경험도 아닌 우리의 신체 즉 실존적 장의 신체로 지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공간에서의 정위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공간적 상황과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깊이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입방체A는 열개의 삼각형과 하나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된 모자이크 평면도로 보여 진다. 이것은 애매한 묘사에서 오는 불완전조직이며, 이때 깊이는 사라진다. B는 불가피하게 하나의 입방체로 보여 진다. 완전한 대칭에 놓이게 하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입방체이기 때문이다. C는 동일한 면의 요소들을 분해하고 서로 다른 면의 요소들을 결합하는 선들을 추가하게 될 때, 육면체의 깊이로의 조직은 파괴 된다. D는 육면체의 깊이를 두께로 이해하게 된다면, 시각의 애매함에 의해 마름모로 보이게 된다.<sup>10)</sup>

따라서 메를리-폰티는 “외현적 크기와 수렴은 객관적 관계의 체계상의 요소처럼 주어질 수 없다. 따라서 깊이로의 조직화는 객관적 사실에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현적 크기와 눈의 수렴을 과학적 지식이 인식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파악하는 대로 기술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즉 현상학적 사고는 객관화하는 사고에 반(反)하여, ‘살려진 경험’을 통한 선택관적 사고에 바탕을 두면서, 관계성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 시각의 애매성에 의한 깊이의 지각

(3) 운동

운동은 바로 그 운동에 의해 규정될 수 없을지라도 장소의 이동 또는 위치의 변화이다. 우리가 먼저 위치를 객관적 공간상의 관계에 의해 규정하는 것처럼, 세계의 관념을 확실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운동을 세계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하는 ‘객관적 운동 개념’이 있다.<sup>11)</sup> 다시 말해, 공간적 위치의 근원은 자신의 환경에 자리 잡는 주체의 선택관적 위치(실존적 장소와 정위)에서 찾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이 운동을 지각하는 주체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주체에 대한 선택관적 경험을 재발견 하는 것이다.

또한 지각은 늘 불완전하고 부분적으로 혹은 일면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지각의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몸의 움직임 때문이다.<sup>12)</sup> 이렇듯 신체의 운동은 우리에게 공간을 지각하게 만들어 주고 주어진 세계를 각자의 경험의 정도에 따라 조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

(4) 장소

메를로-폰티는 세계를 나의 주위에 있는 것이지 나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세계를 인식의 대상으로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직접경험의 장소로서 자기의 몸이 그 가운데에서 세계와 일체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학적 장소로서 생각한 것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세계,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세계와 만나는 것은 이러한 장소에 있어서이다. 장소가 만나는 이에게 있는 그대로를 나타낼 때, 주위가 열리게 되고 세계와 만나는 장소성에 의하여 두께와 깊이를 갖는 공간이

7) 모든 것이 거꾸로 보이게 하는 안경을 통해 공간의 정위를 찾아가는 실험  
 8) 모든 것이 45도로 비스듬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거울의 방에서 체험자가 이동하면서 정위를 찾아가는 실험  
 9) 메를로-폰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2002, p.382  
 10) 광문정, 메를로폰티의 신체현상학을 통한 체현된 건축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 발표논문집 25권 1호, 2005. 10, p.305

11) 메를로-폰티, Ibid, p.405  
 12) 민우식, 스티븐 홀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현상학적 빛의 연출에 관한 연구, 건국대석사, 2004, p.29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sup>13)</sup> 이렇듯 장소는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장소에서 인간은 진정한 의미를 받고, 장소의 혼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환경에 의미를 부여한다.<sup>14)</sup> 이런 의미에서 장소라는 개념은 인간의 의도와 자연의 질서가 융합된 것이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 체험에 관련 된 의미 깊은 중심이 된다. 현상학적 건축으로 잘 알려진 스티븐 홀은 그의 저서 '정착'에서 "건축은 장소와 결합하고 상황, 즉 대지의 의미를 집결시켜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sup>15)</sup>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듯 한 장소와 그 장소에 구축된 공간은 상호교류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지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과의 상호교류의 관계를 거치면서 현상학적인 공간으로 구체화 되는 것이다.

### 3. 전통 공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 3.1. 현상학의 공간개념과 전통 공간




2장에서 나타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 개념요소인 상·하의 방향, 깊이, 운동성, 장소성은 선행연구<sup>16)</sup>의 분석들에서 그 유사점을 찾아 재정리해 본 결과 12가지의 세분화된 틀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게 되었다. 또한 각 분석 틀에서 사용된 사례이미지는 시지각 및 현상학적 공간구성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각 유형별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대입 시켜보았다.

##### (1) 상·하의 <방향성>과 전통 공간

메를로-퐁티의 방향성으로서의 상·하의 측면으로 전통 공간을 들여 다 본다면 본질적으로 하나의 지향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방향성>에 의한 구성이라는 것이다. 이 방향성은 지각주체의 포괄적인 신체의 행위에 의해서 구성되어 지는데 이러한 방향성의 개념은 다양한 축의 구성에 의한 '수평'의 방향성과 구축에 의해 제시 되어지는 '수직'의 방향성, 그리고 이들의 종합에 의해 드러나는 '위계'의 방향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17)</sup> 이렇듯 수평, 수직, 위계는 공간 안에서 <방향성>의 개념을 획득함으로써 상호관계가 성립된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자신의 신체를 그 주체로 하여 공간을 파악하게 되는 현상학적 지각이 가능하게 된다.

13)C.N. 솔츠, 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7, p.120  
 14)정진원, 건축 세계에 있어서의 페르다담의 전환, 공간, 1993. 7, p.42  
 15)Steven, Holl, Anchoring, 1989, p.9  
 16)조성기,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현상학적 지각체험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발표논문집 9권 1호, 1989/이동찬·김동영·김정재, 시지각에 따른 조선중기 상류주거 외부공간의 구성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20권 1호 183호, 2004년  
 17)조성기, Ibid, p.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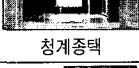

<표 1> 전통공간 안에서 보여 지는 방향성의 요인<sup>18)</sup>

요 인	내 용	사례 이미지
축에 의한 수평의 방향성	축은 선적 특성으로 인해 길이와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통로를 따라 시선을 유도한다.	 선교장
구축에 의한 수직의 방향성	한국전통공간에서는 주로 산지의 형세에 의해 단을 구축함으로써 수직의 방향성이 보여진다. 사찰 등의 진입공간과 주거공간의 공사량채에서 보여 지는 레벨차 등에서 연속함과 권위성을 체험할 수 있다.	 관가정
축과 구축의 종합에 의한 위계의 방향성	수평과 수직의 방향성은 전통공간 안에서 교차와 조화를 이루어 체계 있는 질서를 이룬다. 공간의 영역화나 전통 배치 구성에서 위계적 흐름이 드러난다.	 부석사

##### (2) <깊이>와 전통 공간

전통 공간에서의 깊이는 시간과 공간의 연장에 의해 종합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즉, 전통 공간의 지각체험에 있어서의 깊이는 다양한 지각요소들에 의해 깊고, 얇음이 드러나게 된다. 특히, 간의 진입에 의해서는 분명한 깊이를 지각하게 되고, 내외벽은 적극적인 장애요인으로 지각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장애요인에 의해 깊이감은 더해진다. 또 가장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으로 깊이를 지각하게 하는 요인은 '거리감'이다. 거리는 방향의 전환에 의해 더욱 깊이를 체험하게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각대상과 지각주체의 관점에서 파악할 경우에만 명확히 체험되는 현상학적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현상학적 지각에서의 깊이는 지각주체인 '나'와 '대상'과의 상호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주체와 객체 사이의 실존적 공간관계로서의 깊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전통공간에서 깊이감을 부여하는 요인들은 중첩, 액자효과, 투시효과, 동일요소의 반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 전통공간 안에서 깊이감을 부여하는 요인<sup>20)</sup>

요 인	내 용	사례 이미지
중첩	동일 시선 상에 시각적 대상물들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공간적으로 보다 가까운 것이 멀리 있는 대상물과 겹쳐지게 보이면 공간적 깊이감이 지각된다.	 청계종택
액자 효과	전면의 모습으로 후면의 모습을 제한하여, 전면이 보다 근접된 시각적인 그림틀인 액자의 효과를 가지도록 함으로서 공간의 깊이감을 지각하도록 한다.	 청계종택
투시 효과	시지각 학자인 Gibson은 기술기에 대한 지각에 의해 단일공간에서 깊이감이 형성됨을 지적한다. 즉 선이나 면에 의한 투시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공간의 깊이감은 증대된다.	 향단
동일 요소의 반복	동일한 요소들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배열되거나 단일 대상물이 소실점을 향하여 그 형태가 축소되어 생기는 수평선 들로 공간의 깊이감을 발생시킨다.	 경복궁

18)조성기, Ibid, p.196.  
 19)조성기, Ibid, p.196  
 20)이동찬·김동영·김정재, Ibid, p.118




(3) <운동성>과 전통 공간

신체는 항상 일정한 영역 가운데에서 운동함으로써, 시선을 개재로 한 나의 신체와 대상과의 실존적 관계는 운동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공간에서 지각의 운동성은 ‘공간영역’과 ‘공간연장’의 상호관계로 체험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채에서의 자연으로 향한 운동성은 공통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며 안채에서 뒷마당으로 향한 운동성에 대응하는 요소이다. 또한 높은 기단과 낮은 담장은 그러한 역할을 복돋워 주는 요인이다.<sup>21)</sup>

이렇듯 전통 공간에서 운동성은 그 공간의 주체인 신체로 하여금 역동성과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풍티가 말한 ‘인간적 공간(human space)’의 인식기반을 확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주거공간에서 운동성을 일으키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공간의 트임, 담, 개구부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표 3> 전통공간 안에서 운동성을 부여하는 요인<sup>22)</sup>

요 인	내 용	이 미 지
공간의 트임	‘공간의 트임’은 공간의 폐쇄성과 영역성을 감소시키고, 시각적으로 공간에 역동성을 부여함으로써 트여진 부분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발시킨다.	 관가정
담	담은 일정한 방향성을 암시하기도 하고 반대로 막아서면서 움직임을 다양하게 유도해 준다.	 소쇄원
개구부	공간 내에서 개구부는 공간의 방향성과 흐름, 이용패턴, 움직임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접한 공간과의 공간적, 시간적 연속성을 부여한다.	 관가정

(4) <장소성>과 전통 공간



한국의 전통건축에서는 풍수지리나 음양오행설 등을 이용하여 그 본래의 장소가 가지는 대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구축하는 공간과의 상호작용으로 이용 하려는 작업을 중요시 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소와 인간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되고 인간은 장소에서 확장되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한 장소에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건축을 통해 그 장소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소성의 영향을 받은 건축은 다시 인간에게 그 장소에서의 경험을 건축의 외부로 확장시키게 해준다. 이러한 장소성은 전통공간에서 사상적 측면과 자연 위치적 측면의 관점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21)조성기, Ibid., pp.196-197

22)이동찬 · 김동영 · 김정재, Ibid, p.118

<표 4> 전통 공간 안에서 장소성을 부여하는 요인

요 인	내 용	이 미 지
사상적 측면	전통동양사상인 풍수지리설, 지세론, 음양오행론 등을 적용하여 대지와 장소성에 의미를 부여해 왔다. 특히 풍수지리설은 산,물,별관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다.	 풍수론의 4방위
주변 환경과의 관계적 측면	한국전통공간에서의 장소성은 건물이 구축되어 있는 한정된 대지에서 확장되어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특히 주변 자연물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런 장소성의 영역은 확대된다.	 소쇄원 광풍각

3.2. 전통 공간 분석을 위한 현상학적 틀

앞 절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보면, 전통 공간을 크게 방향성, 깊이, 운동성, 장소성 이라는 네 가지 현상학적 요소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요소는 각각의 공간 특성에 따라 더욱 구체화된 분석 요소로 세분화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전통주거공간을 지각하고 체험하는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전통공간의 현상학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확인 하고자 한다.

<표 5> 전통 공간 분석의 현상학적 공간요소

풍티의 현상학적 지각의 본질 요소	개 념	전통 공간 분석요소
방 향	시지각적 체험	축에 의한 수평의 방향성
		구축에 의한 수직의 방향성
		축과 구축의 종합에 의한 위계의 방향성
깊 이	시지각적 체험	중 첩
		액자 효과
		투시 효과
운 동 성	신체의 움직임	동일 요소의 반복
		공간의 트임
		담
장 소	장소의 의미	개 구 부
		사상적 측면
		주변 환경 과의 관계적 측면

4. 독락당의 현상학적 요소에 의한 공간분석

4.1. 독락당 일곽의 개요<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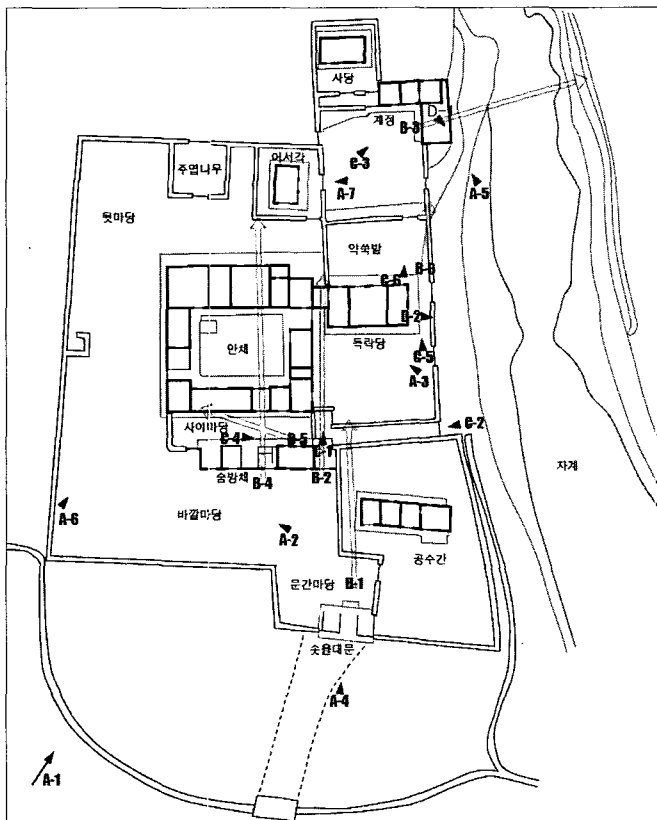
독락당은 보물 제413호로서 경상북도 월성군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회재 이언적이 정계에서 축출당한 후 조성한 별업으로서 그 일곽은 현재까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1) 안채 영역 : 안채, 솜방채

안채는 ‘口’자 평면으로 규모는 25칸이다. 대청과 안방은 북쪽에 배치되었고, 남쪽이 대문, 서측이 광이고, 동측이 안 사랑채이다. 안마당은 남-북이 7.5m이고, 동-서가 10m가량이다. 북

23)문화재청, 독락당 실측조사보고서(원문), 2002, pp.109-111

쪽은 2칸 대청과 좌우측에 방 1칸을 들였고, 서측 1.5칸은 부엌이며, 동쪽 1칸은 마루널을 깔아 책방으로 사용하였다. 동쪽은 안사랑채로 남단에 사랑방인 '역랑제'가 있고 정면 2칸이 사랑대청이다. 북단에는 정면 2칸의 도장방과 다락을 꾸렸다. 안채의 남쪽은 광이 정면 2칸, 1칸으로 배치되었고 광과 사랑방 사이 1칸은 대문이다. 숭방채는 안채와 2.1m의 마당을 사이로 'ㅡ'자 평면으로 배치되었다. 동측 1칸과 중앙 1칸에 각각 대문을 만들었다. 동측 대문은 사랑채인 독락당과 계정으로 통하는 문이다. 안채의 후원에는 회재 이언적의 친구가 중국 사신으로 다녀와 선물한 중국 주엽 나무가 식수되어 있다.



<그림 2> 독락당 일곽의 배치도

(2) 독락당 영역 : 독락당

독락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안채와 면해 있다. 독락당 출입대문은 숭방채 대문에서 보면 정면 담장만 보이고 대문은 동-서 방향으로 나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독락당 담장과 공수간 담장사이에 난 약 1.5m의 통로를 통해 자계에 연결된다. 독락당과 안채의 벽면사이는 약 2m 가량으로 1629년에 책방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담장은 폭 0.6m, 높이 약 1.5m 가량의 외편담장을 쌓았으며, 자계에 면한 담장 사이에는 살창을 설치하였다. 독락당을 구획한 담장의 남-북 거리는 25m로 독락당은 거리의 1/3 지점 정도에 위치하며, 동-서 거리는 13m가량이다. 독락당 동측기단에서 담장사이는 1.6m정도로 계정과 어서각, 사당을 통하는 통로이다. 독락당 뒷마당에는 자계공이 1553년

강계에 있던 중국산 약쑥을 옮겨와 심었던 밭이 있다.

(3) 계정 영역 : 계정, 어서각, 사당

계정은 'ㄱ'자 평면으로 동쪽이 계정이고, 북쪽은 창고와 방이 2개인데 서측방은 양진암, 동측방은 인지현이다. 마당의 서쪽에는 어서각이 있고, 북쪽에는 사당이 자리하고 있다. 사당과 어서각은 각각 3칸이며, 사당은 남향, 어서각은 동향으로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4.2. 방향성

독락당은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이 그의 나이 42세가 되던 해(1532년)에 정계에서 파직된 후, 은거 생활을 위해서 지은 별업(別業)이다. 그런 은둔을 위한 목적을 암시하듯 독락당 구성은 전체적으로 수평적인 낮은 형태를 이룬다. 독락당의 외곽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수평적 인지를 극명하게 체험할 수 있다. 구축에 의한 수직적 요소는 독락당 내에서 보다는 자계 쪽의 골짜기에서 계정을 바라볼 때 발견 할 수 있다. 위계적 구성은 독락당 일곽의 전체 배치에서 사당의 위치에서 드러나며 담의 사용을 이용하여 사당과 어서각의 영역화에서 위계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표 6> 독락당에서 보여 지는 방향성

요 인	위 치	내 용	이 미 지 (A)
축에 의한 수평의 방향성	전 체 외 관	독락당 일곽의 건물은 기단이 낮게 성립되었고, 담이 처마선과 일치하여 건물의 일면을 가림으로써 외부에서 지각시 수평적 방향성을 증대시킨다.	A-1
	숭방채	숭대문을 지나 꺾인 담에 의해 일 방향을 틀면 수평성이 강조된 방채와 마주하게 된다.	A-2
	사랑채 (독락당)	4칸 구성의 독락당은 낮은 기단과 기둥, 그리고 의도적으로 ㄱ자형으로 계획되어진 독락마당과의 계에서 수평의 방향성이 증대 된다.	A-3
구축에 의한 수직의 방향성	숭 대 문	전체적으로 수평적인 형태를 취하는 독락당 일곽에서 숭대문의 수직성은 상대적으로 출입문의 역할과 위엄을 강조하고 있다.	A-4
	계 정 외 관	자계 쪽에서 바라본 계정의 입면은 직의 방향성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독락당 안에서의 유일한 공간이다. 기둥의 골조미와 계정의 살창은 이러한 수직성을 강조하고 있다.	A-5
축과 구축의 종합에 의한 위계의 방향성	전 체 배 치	독락당의 전체 배치는 가로방향의 평적인 채들의 구성이 일정하게 열리고 그러한 채를 담이 세로방향으로 연결하면서 위계의 방향성을 이룬다.	A-6
	수직단 과 수평담 장	사당과 어서각등의 중요도 있는 공간은 단을 올리고 담장을 구축해서 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A-7







4.3. 깊이감

독락당 일곽은 연속적으로 중첩하여 나타나는 건물들과, 담

등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중첩은 초입인 솟을대문의 바깥에서부터 시작된다. 솟을대문 사이로 담과 공수간의 지붕이 중첩되면서 공간의 깊이감이 형성되고, 또한 안채의 중문과 독락당 방향의 중문에서도 이러한 중첩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담과 채에 의해 발생하는 사이공간에서도 깊이감이 나타난다. 이러한 깊이감의 절정은 사랑채인 독락당과 공수간의 사이공간에서 발생한다. 그와 대응하는 깊이감은 숭방채와 안채 공간사이의 사이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마당에서는 행랑채와 숭방채의 처마선으로 인한 투시효과가 그러한 깊이감을 증대시킨다. 독락당 일곽에서 지각되는 동일한 요소의 반복은 일반 전통건축물에서 보여 지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 중에서 맞담<sup>24)</sup>에서 보여 지는 기와의 반복이 담이 갖고 있는 원래의 깊이감을 한층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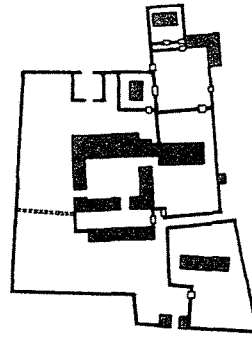
<표 7> 독락당에서 보여 지는 깊이감

요 인	시선 방향	내 용	이 미 지 (B)
중 첩	문간 마당 ↓ 공수간	초입 시 솟을대문을 지나면 담장과 공수간의 지붕이 중첩이 되면서 공간의 깊이감과 호기심을 지각 하게 해준다.	 B-1
	바깥 마당 ↓ 독락당	본격적인 독락당 경내로 진입 시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다. 담과 그 뒤의 안채일부와 독락당의 일부가 면분할 처럼 중첩되어 깊이감이 드러난다.	 B-2
액 자 효과	계정 ↓ 외부	한국전통공간의 정자건축에서 흔히 나타나는 액자효과를 이용한 차경이 이루어진다. 폐쇄적인 독락당에서 개방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B-3
	숭방채 ↓ 안 채	바깥마당에서 일직선으로 숭방채, 사이 마당, 안채, 안채마당, 대청, 뒷담까지 공간의 투시가 이루어지면서 깊이감을 극명하게 체험 할 수 있다.	 B-4
투 시 효과	숭방채와 안채	숭방채 중문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으로 해서 이와같은 지붕선의 투시 효과가 커지고 이로 인해 사이 마당에서 공간의 깊이감을 체험할 수 있다.	 B-5
동일 요소의 반복	맞담의 기와 문양	토담의 일종인 맞담에서 기와의 일률적인 배열이 담이 갖고 있는 본래의 깊이감을 한층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B-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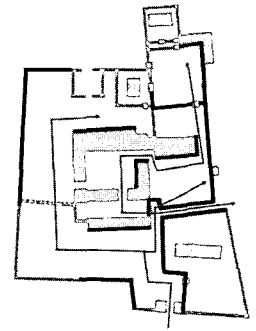
#### 4.4. 운동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독락당의 특징적인 구성중 하나는 담과 채에 의한 공간 구성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독락당 일곽에서 담은 신체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특히 꺾이고 막고 다시 이어지는 다양한 담의 형태는 시선과 동선을 굴절시켜 변화를 줌으로써 신체의 경험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적 공간구성을 취하고 있다.

특히 독락당과 계정도 면(面)으로서 인식되면서 일종의 담의 연장선으로 보여 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공간의 트임을 통한 운동성은 독락당 측면에서 나타난다. 즉, 독락당 앞마당과 뒤쪽의 계정공간을 이어주는 통로로서 안채에서 중문을 통해 처음 독락당 앞마당으로 진입하면 쉽게 인지되지 통로이다. 그러나 동측담장의 운동성과 계정 쪽으로 치우친 살창이 뒤편 계정공간으로의 움직임을 유도한다.









<그림 3> 담장과 통로, (김봉렬)



<그림 4> 동선을 유도하는 채와 담

<표 8> 독락당에서 보여 지는 운동성

요 인	위 치	내 용	이 미 지 (C)
담 장	숭방채 진입 전	독락당내의 결절점으로서 가장 동적인 공간이다. 벽과 담의 구성에 의해 4방향인 바깥마당, 사이마당, 독락당, 자계로 이동할 수 있다.	 C-1
	독락당과 공수간 사이의 담	독락당과 공수간의 이중담 사이의 공간은 자체로 이동하는 운동성을 이끄는 요소로 작용한다. 폭에 비해 길이가 긴 담장을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운동성은 배가 되고 있다.	 C-2
	계정 안마당	계정 안마당도 독락당 안마당과 마찬가지로 모자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를 위해서 계정은 자체 쪽으로 물러나서 담장과 같은 모서리의 역할을 한다.	 C-3
공간의 트 임	사이마당 진입문	숭방채 중문을 지나 사이마당으로 진입하기 위한 문으로 담의 한쪽 끝에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폭으로 트여있다.	 C-4
	독락당 옆 통로	뒤에 위치한 계정공간으로의 움직임을 이끄는 이 통로는 폭이 1.6m정도로 모자형을 유지하는 독락당 안마당에 의해서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C-5
개구부	계정 마당 진입문	독락당의 옆통로를 통해 이어지는 담장의 운동성은 계정공간 진입 전 마지막으로 개구부를 제시해 줌으로써 공간의 영역을 한정하고 있다.	 C-6

#### 4.5. 장소성




독락당 주변으로는 회재가 명명한 4산(山) 5대(臺), 즉 도덕산(道德山), 무학산(舞鶴山), 화개산(華蓋山), 자옥산(紫玉山)의 4산과 징심대(澄心臺), 탁영대(濯纓臺), 관어대(觀漁臺), 영귀대

24)맞담 : 토담의 일종으로 순수하게 흙만으로 축조 하는 게 아니라 진흙과 석회, 지푸라기, 기와, 돌들을 섞어서 쌓는 담

(詠歸臺), 세심대(洗心臺) 5대가 있다. 주산과, 안산을 중시 여기는 풍수사상은 회재로 하여금 서북쪽 봉우리를 도덕산이라 하여 주산으로 삼고, 남쪽 봉우리를 무학산이라 하여 안산으로, 동쪽의 화개산이 청룡, 서쪽의 자옥산을 백호로 삼았다. 북쪽이 비어 있어서 송림으로서 현무를 보충하고 있다. 또한 자계의 다섯 개의 바위에도 의미를 부여하여 마음을 평정히 하는 징심대, 나지막한 폭포를 이루고 있는 바위에서 갓끈을 풀고 땀을 식히는 탁영대, 계정을 받치고 있는 시내의 반석은 물고기를 바라보는 관어대, 관어대 건너 언덕에 있는 바위는 목욕하고 노래를 부르는 영귀대 그리고 잡념을 씻어버리는 세심대(25)라 이름을 지어주었다.

또한 회재는 은둔생활을 위해 조성된 자신만의 폐쇄적인 독락당일곽에서 계정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장소성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점은 계정의 난간부분이 자계 쪽으로 확장 되어 있고, 양옆으로는 살창을 맞대어 주변 산세와 자계의 풍경을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계획되어져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9> 독락당 안에서의 장소의 의미

요인	위치	내용	이미지 (D)
사상적 측면	4山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으로 독락당 주변의 방위에 4개의 산인 도덕산 무학산, 화개산, 자옥산을 각각 주산, 안산, 청룡, 백호 등으로 지명하였다. 송림으로써 현무를 보충하는 모습도 보인다.	
주변 환경과의 관계적 측면	계정난간	자계 쪽으로 돌출 되어 있는 자계의 난간에 기대어 앉으면 폐쇄적이던 독락당 경내는 자연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확장된 장소성을 체험할 수 있다.	
	독락당 우측의 살창	담장의 살창이라는 형식을 취해 자계를 향한 시선 축을 형성함으로써 독락당 사랑채 내부도 자계 쪽으로 확장하고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개념을 통해 한국전통공간, 그중에서도 독락당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시지각적이고, 체험적인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퐁티의 공간 지각의 본질인 '상·하의 방향성', '깊이' 그리고 '운동성'은 시지각적인 체험분석과 신체의 움직임, 그리고 장소성등으로 요약되어지면 다시 12가지의 세분화된 분석틀로 추출하여 독락당에 대입시켰다. 그 결과 독락당은 회재가 은둔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연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간의 주체자인 회재의 신체가 이동하거나 정지해 있을 때 다양한 현상학적인 공간성을 체험케 해주며 그러한 체험성은 독락당내에서 의

부로 확장되면서 의미 있는 장소성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락당에서의 방향성은 주로 축에 의한 수평의 방향성이 지배적이며, 이러한 수평의 방향성은 담장과 통로와 결합되면서 마지막의 사당의 영역까지 위계적 구성을 이룬다.

둘째, 독락당의 주요 구성물인 담장은 꺾이고, 막고, 이어지면서 신체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채의 지붕선들과 중첩되면서 공간의 깊이감을 체험케 해주는 요소로서도 작용한다..

셋째, 4山 5臺와 계정의 축조에서 드러나듯이 독락당은 주변 자연요소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였으며, 이러한 관계성은 독락당의 장소성을 주변으로 확장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독락당 일곽의 여러 장소는 현상학에서 중요시하는 공간의 주체자인 신체의 직접적인 체험과 객체인 건물(物)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간지각이 드러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전통공간에서 드러나는 공간적 개념의 우수성을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 해석과 수용의 가능성이 무한함도 발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Spacetime, 2003
2. 김봉렬, 앞과 삶 의 공간(한국건축의 재발견2), 이상건축, 1999
3.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서우석·임양혁 역, 창하, 1992
4. 메를로-퐁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5. 아케마츠 유우지, 건축공간의 미학, 이두열 역, 현대건축사, 2000
6. 문화재청, 독락당 실측조사보고서, 2002
7. 이종근, 건축의 존재와 의미, 기문당, 1995
8. 이종우, 건축사상과 공간, 기문당, 2002
9. 정진원, 건축세계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전환, 공간, 1993. 7
10. 조광재, 몸의 세계·세계의 몸, 이학사, 2004
11. 한국현상학회, 몸의 현상학, 철학과 현실사, 2000
12. C.N. 솔츠,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1997
13. K. C. Bloomer&C. W. Moore, 신체·지각 그리고 건축, 이호진·김선수 역, 기문당, 1999
14. 광문정, 메를로퐁티의 신체현상학을 통한 체험된 건축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 발표논문집 25권 1호, 2005. 10
15. 김재선, 현대 주거 실내공간에 있어 현상학적 빛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7권, 2호, 2005. 10
16. 김홍수, 다니엘 리벤스킨트의 건축공간개념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 2002. 3.
17. 민우식, 스티븐 홀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현상학적 빛의 연출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 2004
18. 서정연, 현대건축의 공간구성에서 나타나는 현상학적 중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5권 2호, 2006. 4
19. 신일순, 메를로-퐁티의 몸의 현상학,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1.
20. 오혜선, '몸'의 관점으로 본 현대 건축의 표현 양상 연구, 대한건축학회 발표논문집 23권 1호, 2003. 4
21. 이동찬, 시지각에 따른 조선중기 상류주거 외부공간의 구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20권 1호 183호, 2004
22. 이옥련,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체험적 공간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발표논문집 25권 1호, 2005. 10
23. 정변천, 현대 미니멀 건축의 작품경향에 관한연구, 부산대 석사, 2004.2
24. 조성기,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현상학적 지각체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발표논문집 9권 1호, 1989. 4